



‘전북 미래 100년 이끈다’ 메가 프로젝트 발굴 시동

이원택 지사, 발굴추진단 운영 방향가이드라인 제시
“기업인·전문가 참여로 실현 가능성·완성도 높여야”
12월까지 운영… 3000억 이상 규모 10건 이상 발굴

동부권 산악관광 개발·지역필수시설 도입 등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100년을 이끌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본격 나선다.

도는 18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 구성을 비롯해 동부권 산악관광 개발, 전북형 비자 사다리 구축, 지역필수시설 도입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지사는 먼저 전북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는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중대한 과제인 만큼, 추진단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도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과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참여시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10건 이상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부지사를 단장,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경제·일자리 △미래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마을금·해양수산 △균형발전SOC △환경·교육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

정부의 국가재정 투자 방향과 도정 운영 방향에 연계한 지역 강점 기반 특화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반영과 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정치권과 협력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지사는 지리산과 덕유산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동부권 관광 개발에 무게를 실으며, 산림청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소나무재

선충병에 대해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는 초기 방제에 나서 산림자원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대한 해법으로는 ‘전북형 비자 사다리(전북형 이민비자 체계)’가 거론됐다.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학부터 취업, 정주까지 단계별로 있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정책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대학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KTX와 SRT 통합 운영에 따른 효과를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통합 운영으로 호남권 고속철도 운행 횟수가 늘고 좌석 공급도 확대돼 교통 편의성이 향상된다”며 “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원택 도지사는 “지역필수시설” 사업과 관련해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전북의 의료 인프라와 역량 전반을 끌어올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오상근 기자



2026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대응… 도, 2026 을지연습 실시

21일까지… 도·시군·군·경·소방·공공기관 참여

도상연습·민방위훈련 병행… 비상상황 대응·협업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도내 전역에서 ‘2026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도와 시·군을 비롯해 군·경·소방·도내 주요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올해 연습은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작전 편성,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도상연습, 실제훈련, 민방위 훈련 등 실제 비상상황을 가정한 훈련

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첫날인 18일에는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최초 상황보고와 함께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작전 편성훈련에 들어간다. 이어 21일까지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체제를 점검한다.

19일에는 충무시에서 상황보고와 도상연습을 진행하고, 오후 3시 정읍시 제2청사에서 민·관·군·경·소방 등이 참여하는 실제훈련을 실시한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대응 임무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0일에는 도상연습과 정부상황평가 회의에 이어 오후 2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도는 훈련을 통해 비상시 주민 대피와 긴급차량 이동 등 현장 대응체제를 점검하고 도민의 비상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아침 상황보고 등을 거쳐 4일간의 연습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을지연습을 마무리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철저한 비상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도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각 기관별 임무를 완벽히 숙지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여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일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 과정에서 긴급차량 이동 등에 따른 일부 교통 통제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비빔밥은 살아있는 무형유산”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영문판 발간

500년 전부터 이어온 대표 한식 ‘비빔밥’을 살아있는 무형유산으로 바라본 연구가 나왔다.

오세미나 무형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한 국제학술지 제21호 국제저널 무형유산 영문판에서 비빔밥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무형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2017, 2022, 2025년 현장 연구를 토대로 전북 전주와 경남 진

주 지역 비빔밥의 전승·변형·제도화를 살펴본다.

논문에 따르면 전주비빔밥은 궁중·제례 음식 전통과 도시화·상업화 과정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근대 도시 음식으로 정착했고, 전주비빔밥은 교방 문화와 종가 음식, 우시장과 정육점 발달 등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삶을 나타내는 음식이 됐다.

오 교수는 비빔밥을 사회 발전과 연계한 식문화의 신물이자, 지역 산



전주비빔밥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물 등 지역성을 드러내고, 현대와 조화를 상징하는 음식이자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무형유산으로 설명한다.

학술지는 국제저널 무형유산 누리집이나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뉴시스

교육인권 침해 사안, 법률·현장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전담 변호사 2명·파견교사 3명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천호성 교육감 1호 결재 사항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해 교육인권전담변호사 2명을 채용하고, 파견교사 3명을 공개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력 증원은 교육활동 침해, 학

교폭력, 아동학대 등 교육인권 관련 사안이 복잡·전문화됨에 따라 사안 발생부터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교육인권전담변호사는 교육공무직원

신분으로 2명을 채용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한다. 교육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현장 법률지원 △행정심판·행정소송 지원 △사안별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한다.

파견교사는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학교 민원 등 교육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현장 지원과 컨설팅,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지원, 교육인권 보호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제10대 군산시의의회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신리받는 열린 의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산시의의회